

불교 충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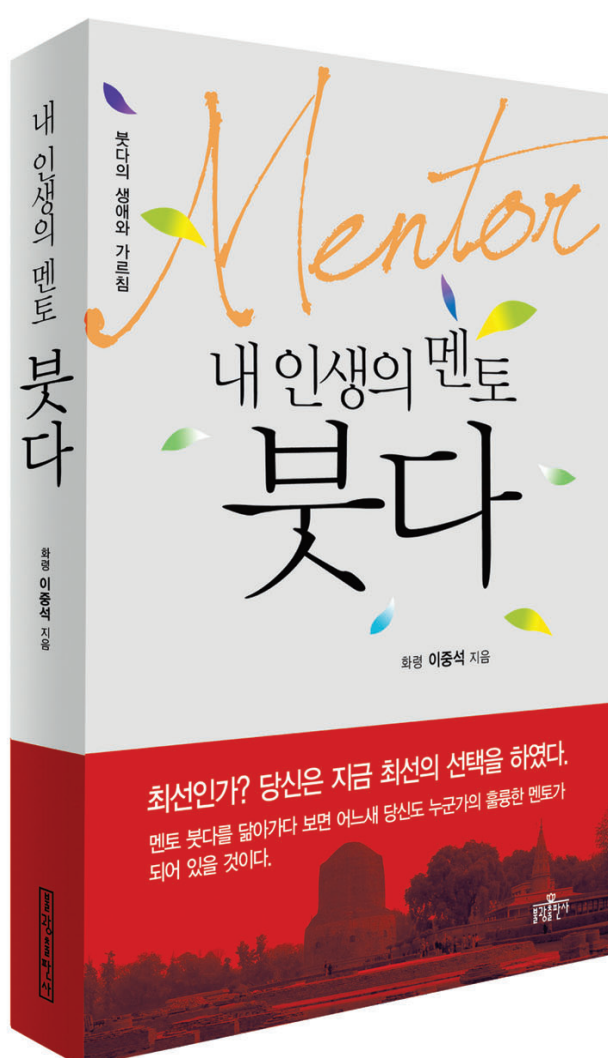
다가오는 충기41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지난 16년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씁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국불교기자협회 정식 회원사로서
종단중흥과 밀교 흥포를 위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루 차시기를 서원합니다.

충지정보 편집위원회, 전국통신원 일동 합장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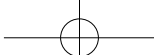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2011년 12월 5일

음력 11월 1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가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5년

제 145 호

서부 경남 교화의 중심 사원 '진주 화음사' 헌공불사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 교도 500여명 동참



불교총지중의 서부 경남 포교의 전진기지인 진주 화음사가 총기40년 11월 24일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중 부산 경남교구(교구장 지광정사)는 진주 화음사(주교 수현정사)의 약 15개월에 걸친 신축 공사와 불단 이전을 마무리하고 관세음보살 입상, 득락전, 서원당을 제막했다. 효강 종령 예하, 지성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의 스승 및 교도 5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중립 동해중학교 사물놀이단의 길놀이로 그 막을 올렸다. 서원당 앞 높이 약 5미터의 관세음보살상 제막에 이어 2층 득락전을 제막하였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와 지성통리원장, 수현 화음사 주교 등이 서원당 본존의 막을 걷고 헌공불사를 임제하였다. 시정 재무부장의 사회와 인선 총무부장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는 육법공양(부산 정각사)에 이어 효강 종령 예하는 “오늘,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다 함께 불사를 올리고 서

원 하오니, 이 화음사가 미래제가 다 하도록 불법의 인연처가 되게 하옵고, 우비고뇌(憂悲苦惱)의 수렁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는 무진등(無盡燈)이 되고, 서원성취의 마니보궁(摩尼寶宮)이 되며,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의 원천이 되게 하며, 세계 평화화를 이루는 불국토가 되게 하옵소서”며 헌공사를 부처님 전고 하였다. 이어 지성 통리원장은 “종단에서 전통양식의 한옥식 전당을 건립한 예가 여럿 있습니다만, 더욱 수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화음사의 법계도량을 완공하고 보니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당건설에 무진서원과 원력을 다 해주신 당해사원의 화음사 주교 정사님, 전수님, 그리고 화음사 교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모든 분들의 서원과 크나큰 발원이 있었기에 이 웅장하고 청정한 수행도량, 비로자나 금강법계궁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

다.”고 인사 말씀을 전하고, 이번 불사를 현장에서 행진 화음사 주교 수현정사는 “먼저 이 헌공 불사에 동참해 주신 스승 및 교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헌공불사가 있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정진해주신 화음사 회장님과 교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며 그간의 감회를 밝혔다. 계속해 화음사 지회장 원행심보살과 이재호각자의 인사말에 이어 진주 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도각스님은 축사에서 “정통밀교 총지중의 장엄한 화음사 헌공을 축하드리며, 불교 교화와 발전에 함께 이바지 하자.”며 진주지역 스님과 불자들을 대표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헌공불사 후 서원당 앞마당에서는 축하공연으로 박정수양의 가야금 연주, 민요 산조, 동해중 모듬북 공연이 이어져 동참자들의 흥을 돋웠다. 진주 화음사는 총기14년(1987년) 4월 10일 진주시 장대동에 선지서원당으로 처음 개설되었다. 총

기 16년(1989년) 3월 18일 진주시 망경동에 대지 209평, 건평 40평의 건물을 매입, 이전 불사를 봉행하고 서원당의 명칭을 화음사로 개칭 하였다. 초대 주교로 정당 정사가 취임하였고, 이후 법성 정사, 법정 기로 스승님을 거쳐 현재는 수현 정사가 주교로 봉직하고 있다. 진주 화음사의 신축 불사는 총기38년(2009년) 12월에 진주시 망경동 8번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총기 40년(2011년) 2월까지 약 15개월에 걸쳐 불사를 진행하였다. 신축 화음사는 대지 346평에 연면적 133평의 2층 건물로 전통의 한옥 기와와 현대적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서원당으로 완공하였다.

진주 화음사=김종열 기자.

제3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천태종 관문사에서 봉행

종교간의 화합을 주제로 사흘간 열려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2차 불교문화교류대회'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스님,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지성정사, 총무부장 인선정사, 교정부장 수현정사, 사회부장 우인정사를 비롯한 각 종단 대표 137명이 참가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미야바야시 쇼겐 회장을 비롯한 75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14일 저녁 잠실 롯데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한국 측 이사장 천태종 정산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종교 화합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의 이면과 가치를 바로 잡고, 그 속에서 빛어지는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종교가 갖는 존재의 이유이기에 종교 간의 화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책무이자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며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을 환영 했다. 이어 일본 측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은 “지난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교류협의회로부터 신속한 지원과 합동 위령법의 봉행 등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걱정해준 한국 불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5일 오전 10시 천태종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교류대회의 본 행사가 봉행되었다. 한국 측 회장 지승스님은 대회를 통해 “이번 대회에서는 통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슬픔을 극복하고 지속적 연대로 동북아 평화 구축을 실현하는 자리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 측 부회장 홍파스님의 축원에 이어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후 1시부터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양국의 발표자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윤영해 교수와 일본 측에서는 임정대학교 도변보양 교수가 ‘인류문화는 불교정신의 현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어 양국 사무총장은 4개 항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상호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16일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국도예를 방문하여 전통도자체현과 조계종 신록사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참배하였다. 오후 6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짓는 해단식을 갖고 내년 일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관문사=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절두절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총기40년 창교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의궤와 수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단 총지중은 총기40년 창교절을 맞아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시: 총기40년 12월 24일(토)
-장소: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중 통리원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해인사에서 인환스님 등 7명 품서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에 대한 법계(法階) 품서(禀敍)식이 11월 24일(목)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도림법전 종정예하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대종사 품서를 받는 7분의 스님들은 서원문 낭독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으며, 허공에는 다함이 있사울망정 저희들의 서원은 다함이 없사오리라.”고 맹세했다. 조계종 법전 종정은 인환스님, 정관스님, 월탄스님, 암도스님, 설정스님, 종하스님, 근일스님 등 7분의 스님들께 ‘대종사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다. 이어 법전 종정은 법어를 통해 “여러분은 발군무비(拔群無比)한 지혜로 영산(靈山)의 법등(法燈)을 밝히고 소림(少林)의 종지(宗旨)를 전수할 안목을 갖춘 일군대사(逸群大士)이며, 근념정진(勤念精進)으로 터득한 불조대기(佛祖大機)로 모든 군생(群生)에 이택(利澤)을 입히고 사해(四海)를 빛나게 하여 불조(佛祖)의 정인(正因)과 강령(綱領)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는 지난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봉행되었으며, 이번 품서식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7분에게 수여되었다.

김종열 기자

‘총지종보’ 한국불교기자협회

정식 회원사가 가입

-한국불교기자협회 ‘2011불교언론인의 밤’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조용수, 이하 불기협)는 12월 5일 견지동 엘마레파에서 ‘2011불교언론인의 밤’을 개최했다.

불법흥포와 문서포교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불교 언론 기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위한 이 행사는 불교언론인후원회(회장 최승천)와 공동으로 해마다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총지종 총지종보가 정식회원으로 가입 인준을 받고 회원사로 등록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총지종보는 지난 1995년 10월 창간하여 올해로 창간 16주년을 맞아 교계 중견언론으로 자리 매김을 했다.

불기협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기자상 대상인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은 〈주간불교〉 김지중 기자의 ‘군승자질 속왕이 군포교’ 보도기사가 수상했다.

“군대라는 특수환경을 간과한 출가자 중심의 군승선발과 이로 인해 야기된 군포교 중무정책의 패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함으로써 군포교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에서 출·재가자 역할에 대한 재고 가치를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해종 장학금 수여자로 기자 본인 2명과 자녀 5명에게 전달 되었다.

종로=김종열 기자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 봉행

-진언의 총지문을 열어 중생 업을 다스리자



진각종 제 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가 11월 24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성대히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이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천태종 무원 총무원장대행,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 등 불교 관계자와 문광부 강봉석 종무실장, 정의화 국회 부의장, 신계륜 신정지문화원 등 내외 귀

빈 1,000여명이 참석했다. 총인추대법회 봉행위원장 혜정(통리원장) 정사는 “오늘은 사라져가는 밀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새로이 밀교를 창종하신 진각성존 회당종조님의 법통을 11번째로 승계 상승하는 뜻 깊은 날이며 진각종단의 제 11대 총인으로서 법통 승수하는 이 성스러운 인연의 자리는 진실로 불은이 가득한 자리”라면서 “성스러운 법석에 동참하신 불자와 진각종도들은 성초 총인 예하 추대법회의 큰 인연으로 한국불교의 성상 속에 수행정진, 그리고 회향의 주인으로 다시금 우뚝 서기를 저마다 서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초 총인은 취임 법어를 통해 “심인의 진실방편은 심성을 깨쳐서 과학문명을 출세 쓸 수 있게 하며, 진각의 정법설법은 진언의 총지문을 열어 중생 업을 다스리게 한다”며 “이제 이 법문으로 화합종단의 기풍을 새롭게 하고 중생과 나라와 인류의 안존(安存) 열락(悅樂)이 법계에 두루 하도록 맹행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2011 불교합창페스티벌 성황리 봉행

대상에는 대전 비구니 청림회 합창단

‘2011불교합창페스티벌 신작찬불가 경연대회’가 11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봉행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불교음악인협회(회장 이달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은 인사말에서 신작찬불가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당부와 함께, 불교합창페스티벌에 참여한 불자들이 불교를 넘어 이웃 종교와 사회를 아름답게 소통해 갈 수 있는 불씨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9개의 합창단 850여명이 참가하여 예선, 본선을 나누지 않고 경연대회를 진행하였다.

대상은 대전 비구니 청림회 합창단(단장 이재기), 최우수상에는 조계사 청년회 소리마루 합창단(단장 이길수), 강원 신흥사 한마음 합창단(단장 이정숙)이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서울 함



림사 합창단(단장 정순근), 대전 광수사 반설합창단(단장 한현숙), 강원 낙산사 합창단(단장 신영숙), 강원 구룡사 합창단(단장 흥연옥),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 금강합창단(단장 변민희), 충주 사르나트레이디스싱어즈 합창단(단장 범성스님), 대구 한

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가릉빈가합창단(단장 광명숙) 총 7개팀이 수상하였고, 지휘자상에는 충주 사르나트레이디스싱어즈 합창단 김태환 지휘자와 서울 함림사, 강원 신흥사 합창단 박성규 지휘자가 공동수상하였다.

서울교육문화회관=김종열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10월26일부터 11월25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10/28	10,000
개천사	무명씨	11/14	10,000
개천사	무명씨	11/22	10,000
관성사	박현숙	10/26	10,000
관성사	황성녀	11/1	10,000
관성사	김한옥	11/2	10,000
관성사	김동운	11/17	30,000
관성사	박현숙	11/25	10,000
기 로	경 관	10/27	10,000
기 로	대도행	10/27	10,000
기 로	대 관	11/21	10,000
기 로	대자행	11/21	10,000
기 로	밀공정	11/21	10,000
기 로	법수원	11/21	10,000
기 로	법장화	11/21	10,000
기 로	법지원	11/21	10,000
기 로	불멸심	11/21	10,000
기 로	사홍화	11/21	10,000

기 로	상지화	11/21	10,000
기 로	수증원	11/21	10,000
기 로	총지화	11/21	10,000
단음사	천 공	11/7	4,000
단음사	법연지	11/16	10,000
덕화사	법 등	11/17	20,000
만보사	박선희	10/31	10,000
밀인사	정정희	10/31	5,000
밀인사	이채원	11/16	10,000
밀인사	이혜성	11/22	20,000
백월사	김현중	11/4	10,000
백월사	한정훈	11/18	5,000
법천사	김정숙	11/8	5,000
법천사	시 정	11/21	10,000
법천사	원만원	11/21	10,000
벽룡사	양정현	10/28	10,000
벽룡사	양지현	10/28	10,000
벽룡사	무명씨	11/1	20,000

삼밀사	원 송	10/26	10,000
삼밀사	인법계	10/26	10,000
선립사	수 정	10/26	10,000
선립사	정복지	11/17	10,000
선립사	심지장	11/17	10,000
성화사	위대라기회	11/10	50,000
수인사	김봉기	10/26	10,000
수인사	장영택	11/1	50,000
승천사	원 봉	11/14	10,000
승천사	지선행	11/14	10,000
시법사	진여행	11/18	10,000
실보사	해 정	10/26	10,000
실보사	정법계	10/26	10,000
실보사	송희준	11/2	10,000
실보사	조순애	11/15	150,000
실지사	보생각	10/28	10,000
실지사	박병성	11/14	500,000
실지사	이화수	11/22	10,000

실지사	정우석	11/24	10,000
정각사	김문수	11/11	10,000
정각사	구정희	11/15	20,000
정각사	박동휘	11/18	10,000
정각사	이정선	11/18	5,000
제석사	박진희	11/23	100,000
지인사	허성동	10/28	20,000
지인사	송효제	11/14	10,000
지인사	허성동	11/23	20,000
해정사	조성기	10/27	20,000
해정사	오해민	11/1	20,000
화음사	강순란	11/2	5,000
흥국사	지 정	11/14	20,000
	윤수지	10/27	10,000
	안효정	10/27	20,000
	최순전	10/27	20,000
	이혜원	10/31	5,000
	신 바	11/4	100,000

이희원	11/9	10,000
정영미	11/17	10,000
서울경인교구회교도일동	11/17	880,000
무명씨	11/21	5,000
박말조	11/21	5,000
임동수	11/23	30,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부산 정각사
박명자 보살
반포법시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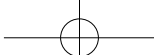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회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지성통리원장 진각종 성초 신임총인 취임 축하 방문

불교총지종 통리원 집행부는 11월 17일 진각종 총인원을 방문하여 신임 성초 총인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정사와 총무부장 인선정사는 오는 11월 24일 추대법회를 갖는 진각종 성초 총인을 예방하고, 취임을 축하하는 교도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임 성초총인은 총지종 집행부의 축하 방문 자리에서 “총지종보를 통해 총지종의 다양한 행사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재가 불자 종단이자 밀교 종단인 양 종단이 합심하여 진정한 재가 불자의 시대를 열어가자.”며 양 종단의 상호 우호 협력을 더욱 내실화 할 것을 제안했다.

총지종 지성 통리원장은 “성초 총인님의 취임을 총지종 전 종도를 대표해



축하드리며, 양 종단이 함께 밀교 발전과 재가 불교발전에 함께 하기를 서원한다.”며 재가 종단 발전에 함께 매진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정사가 배석하였고, 화기애애한 분위로 오찬을 함께 했다.

종립 학교법인 관음학사 사무국장에 법선(황의수)정사 임명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통리원장은 11월 9일 동해중학교에서 법인 사무국장에 법선(황의수)정사를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관음학사 이사 인선 정사와 장재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관음학사의 운영이 서울과 부산으로 나누어져 학교 법인의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이사회 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임 사무국장은 동해중학교 법인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법인의 지원 방안을 찾고, 이를 원활히 시행 할 예정이다.

동해중=정종윤 선생님.



하정정사 49재 회향 법회 봉행



불교총지종 제7대 통리원장을 지낸 하정 종사의 49재 회향 법회가 11월 30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 및 교도님들이 동참해 정사님의 교화와 수행 정진의 삶을 회고 했다.

총기 40년 10월 13일 열반에든 하정 종사는 총기3년 밀양선교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총지종 주요 보직을 거쳐 제7대 통리원장을 역임 하였다.

종사께서는 평소 원정대성사의 유훈을 받들어 총지종 교화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중앙종의회, 원의원, 재단이사회 연석회의 -주요 안건으로 임시회 개최

불교 총지종 통리원은 연내 해결해야 할 주요 안건의 토의와 심의를 위해 중앙종의회, 원의원, 재단이사회 연석회의를 11월 30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 했다. 통리원장 지성 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회의는 관음사 부지 매입건과, 고산 수련원 올레길 조성 및 임대건에 관해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다. 두 사안 모두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이를 심의 통과시켰다.

서울.경인교구 교구회의 개최



서울.경인교구 교구(교구장 시정 정사)는 11월 11일 벽룡사에서 교구회의를 개최했다. 총기40년 결산보고와 창교절 선물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교구장 시정 정사는 그동안 조성한 복지기금을 통리원장 지성 정사에게 전달했다.

김종열 기자

벽룡사 김장으로 월동 준비완료

총지종 서울 벽룡사(주교 법일정사)는 11월 27일 자성일 점심공양 후 2층 공양처에서 총기 41년도 김장을 담구었다.

벽룡사 교도들이 동참한 이날 김장은 한해의 월동을 준비하는 마음과 교도들과 함께 나눌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날이었다.

벽룡사= 통신원 양재범



서울,경인 김은숙 신정회장 경남여교 재경총동창회장에 취임



총지종 서울,경인 신정회장 김은숙 보살이 경남여교 재경 총동창회장에 임명되었다. 11월8일 서울 센트럴 파크 6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경남여교 재경동창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신임회장에 김은숙보살을 임명했다.

1927년 설립된 부산 경남여고는 최초의 공립여학교로 2008년 '개방형 자율교로' 지정된 지역 전통의 명문이다.

편집위원 박정희

감 사 드 립 니 다 .

부산경남교구 진주 화음사 헌공불사에 동참해주신
내외귀빈 그리고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주 화음사는 서부 경남 교화의 최고의 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기 40년 12월

불교총지종 통리원. 주교 수현 정사. 자심관 전수. 지회장 원행심 외 교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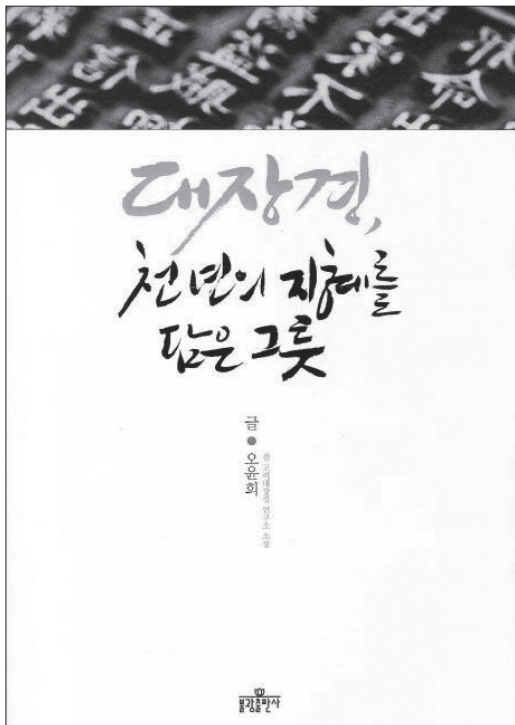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및 시상식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2011년 ‘제8회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의 대상은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이,
우수상은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과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이 선정되었다.

▶ 대상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윤혁 저 / 불광출판사

이 책은 대장경의 이모저모를 살핀 것이다. 저자는 모두 4장에 대장경의 유래와 의미를 서두로 하여,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 속장경, 재조대장경 등의 특성을 밝히고 그 주변 이야기까지를 엮되, 인문학적 시각과 대중적 글쓰기로 다가서고 있다. 또한 저자는 20여 년 간장(藏)이라는 하나의 영역에 집중하여 화두를 풀듯이 대장경의 면모를 밝히려 한다. 여기서 독자는 저자가 학자라기보다는 도를 구하는 구도자 또는 수도자와 같은 진지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이 책이 학술서이지만 일반 대중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저자의 이러한 역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역작이다.



▶ 우수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
윙정운 글, 그림 / 나무 생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은 자비와 평화, 무욕과 무집착 같은 불교적 가치관을 단순하고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만화 불서에 가졌던 불만이 충분히 극복되

고 있다. 세속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종교에 매달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불교적 삶을 보여주는 이 카툰집은 그런 세상을 향해 조용한 깨우침을 선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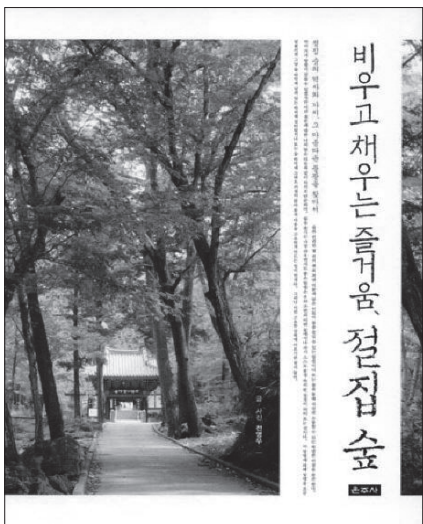
▶ 우수상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글, 사진 / 운주사

이 책은 21세기 자연 및 생태 소비의 훌륭한 대상으로서 절이라는 공간을 주시하고 있다. 현대문명이 자연과 유리된 삶을 강요하면 할수록 현대인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생태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갈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이 책의 핵심은 ‘절집 숲에서 찾는 마음의 풍요’이다. 물질 소비 대신에 생태 소비와 자연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이 충족되고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 함몰된 토건족의 막개발로 끝도 없이 난자를 담고 있는 우리 땅 우리 숲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우리의 근본을 지키는 하나의 성서처럼 읽혀져야 할 것이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안성두 외 / 서울대출판부

이 책은 전문 학자들이 불교와 진화론의 융합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 논문집이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요구한다. 시대의 변화는 불교사상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학과 진화론은 현대사회의 핵심 사상이며, 그런 점에서 불교사상과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접근은 무모한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붓다와 명상
임승택 지음 / 민족사

〈붓다와 명상〉은 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불교연구자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점은 책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 책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현재 한국불자들이 익숙하게 이해하는 교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가, 거기에 도달하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이다. 불교는 명상의 종

가를 자처하는 종교다. 그 불교의 오랜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자면 이 책에서 인도해주는 정도의 교리적 이해를 바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불교에 맞는 설명이 돋보인 책이다.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폴 니터 지음, 정경일 번역 / 클리어마인드

이 책이 흥미를 끄는 것은 저자 자신이 거듭해서 기독교의 이원론적 도그마를 부정하고 불교의 열린 태도, 보편적 가치 등을 주목하는 점이다. 근본주의적 교리해석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종교가 되려면 불교적 이론과 가치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의 정확한 불교이해다. 불교도는 불교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학자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

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기독교에 이런 훌륭한 지성을 갖춘 신학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페마 초드론 지음, 구승준 역 / 한 문화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는 미국인으로 태어나 티베트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된 후 북미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수행자가 부처님을 대신해 현대인들에게 마음 다스리기를 가르쳐주는 범문집이다. 스님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편안해지는가를 조곤조곤 설명한다. 마치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불교가 현학적 교리나 구름 잡는 애

기만 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바로 이런 범문이 필요하다.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김성철 / 지식산업사

고구려 요동 출신의 승랑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가르침은 승전, 범랑을 거쳐 길장 등에 의해 삼론학으로 집대성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료는 여러 군데 산일대 인물의 행적과 사상적 특성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승랑의 생애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집성한 급년도 불교학계의 최대 연구성과다.

답일소(答一笑) -선지식에게 물었다
글.사진 문윤정 / 한결을 더

이 책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수행을 하고 있는 선승 열일곱 분의 선수행 이야기이다. 저자가 스님들의 선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묻고 스님들이 답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식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진솔한 선수행 이야기를 담은데 특색이 있다. 결국 이 책은 한국 선지식들만의 독특한 선수행과 그들의 인격, 그리고 선수행 공간을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독자들은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살아있음과 정체성을 실감하게 된다. 다만, ‘답일소’란 책의 제목이 어려워 보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거슬린다.

내 인생의 절밥 한 그릇
성석제(외) / 뜨란

‘우리 시대 작가 49인이 차린 평온하고 따뜻한 마음의 밥상’이라는 부제로, ‘깊은 위로와 다시 살아갈 힘을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밥상’을 책에 담고 있다. 밥과 삶에 대한 사유를 담은 에세이인 이 책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만 5년 동안 월간 〈불교문화〉에 연재된 원고를 모아 엮은 것이다.

생각 더하기

TEL : 070-4249-1987

www.mindplusbook.com

출판사는,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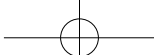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 운문 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분가집
각종 경전류 발간



■ 편집실 칼럼

밀교의 법대로 수행 정진하자.



중국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있었습니다. 현장법사가 손오공을 만나 불경을 구

하기 위해 천축국으로 가다가 여섯 명의 도둑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법사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손오공이 그들과 맞섰습니다. 도둑들은 손오공을 향해 “이놈, 가진 것을 모두 놓고 가거라.” 하자 손오공은 “뭣 주겠다. 어쩔 테냐?” 하고 맞섰습니다. 화가 난 도둑은 손오공의 머리를 칼로 내리치고, 도끼로 찍었습니다. 그러나 손오공의 머리는 상처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손오공이 제풀에 나가떨어진 도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하고 여의봉으로 여섯 도둑의 머리를 내려치자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도둑을 물리친 손오공은 현장법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법사가 와서 보니 사람이 여섯이나 죽어있는 것입니다. 놀란 스님은 손오공을 크게 꾸짖으며 “오공아, 불법이 대자대비인불을 모르느냐? 불법의 제일계가 불살생인데, 감히 사람을 죽이느냐?” 하였습니다. 현장법사의 나무 랍에 마음이 뒤틀린 손오공은 스님에게 “조금 전에는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가더

니 이제와 꾸지람입니까?”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손오공을 앞에 앉히고 다시 법문을 했습니다. “오공아! 여섯 도둑을 물이키면 육신통을 만들 수 있고, 여섯 가지 인식을 돌이키면 육바라밀을 이룰 수 있다. 번뇌 망상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려는 것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서유기에 나오는 육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적은 육경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인 안(눈), 이(귀), 비(코), 설(혀), 신(몸), 의(뜻)의 육근(육근)이 감지하는 색(색), 소리(성), 냄새(향), 맛(미), 접촉(촉), 법(법)의 여섯 가지 대상이 육경인 것입니다. 이 육경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육적, 곧 여섯 도둑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법사의 법문처럼 이 육적을 돌이켜서 육신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따라다니는 색, 소리, 냄새 등 여섯 도둑을 잘 감화시켜 자유자재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빛깔, 나에게 맞는 소



리, 냄새, 맛, 감촉 등에 집착하여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에 들어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돼지처럼 육식을 부리다 죽어 저승에 가

면, 염라대왕은 그에게 돼지머리를 꼭 씌어 준다고 합니다. 영락없이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빛 많이 지고 미련한 짓 많이 하면 소의 겹집을 덮어 쓰게 됩니다. 이를

쓰고 남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이번 한번 뿐입니다. 마음의 일승을 등져 버리면 영원히 참된 불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일승은 바로 불승(불승: 부처의 경지로 나가는 수레), 즉 자성성불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 자성 부처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 시기에 참된 성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리고 불도를 깨우치지 못한 것이 오직 나의 허물임을 자각하고 방법을 모색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경전을 보거나 스승님들의 설법을 열심히 듣고 하나 하나 실천해 봅시다. 우리에게선 원정 대성사께서 중흥하신 정통 밀교의 의례와 수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밀리 전수하신 이 법을 불철주야 수행정진한다면 누구나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성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옵마니반메흠

화합시키는 말을 하라

이간질을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간에 투쟁을 하지 않으며 화합의 말을 즐겨 사용하면 그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곧 천상에 태어나게 되리라.

—별역잡아함경 제14권 한글장—

입의 허물 가운데 양설(兩舌)이 가장 무겁다

말 많은 것을 너무 좋아할 때는 탐욕 늘리고 남을 두렵게 한다. 입의 허물은 스스로를 자랑함과 그리고 양설(兩舌)이 그 제일이니라.

—법원주림 제76권 한글장—

미워하지 않을 것을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을 것을 미워하고 비방하지 않을 것을 비방하여 엮을 짓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윤회에 빠져 이승에서나 저승에서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스스로 악업을 짓고 남을 또한 괴롭히고 해치는 일은 그물로 떨어지는 새가 남을 물고 뿔어짐과 같도다. 남을 괴롭히는 것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힘이니 원수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 때문이니라. 남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방함이요 남에게 성내는 일 스스로 자기마음을 괴롭힘이라.

—법집요송경—

행복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널리 베푸는 것을 도와 주고 기뻐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 어느 사문이 여쭙었다. "이 복은 다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은 비유컨대 하나의 촛불과 같으니, 수천 명이 각기 초를 들고와서 불을 나누어 켜 주어 밤을 짓고 어둠을 밝혀도 처음의 촛불은 다름없으니 행복 또한 이와 같다"

진리의 여율

—대반열경—

스무 가지 어려움

"사람에게는 스무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는 보시하기가 어렵고, 돈 많고 지위가 높아 가지고는 배우기가 어려우며, 숨을 버려 죽기를 기약하기 어렵다. 살아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 보기 어렵다.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 갖고 싶은 생각 내지 않기 어려우며, 욕을 먹고 성내지 않기 어렵다. 권세를 가지고 뽐내지 않기 어렵고, 일을 당해 무심하기 어렵다. 널리 배워 두루 연구하기 어렵고, 아만을 버리기 어려우며, 무식한 사람을 깔보지 않기 어렵다. 마음을 평등하게 쓰기 어렵고,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 선지식(善知識)을 만나기 어렵고, 자성(自性)을 보아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형편 따

라 교화하여 사람을 제도하기 어렵고, 어떤 경우를 당해 움직이지 않기 어려우며, 방편을 잘 알기 어렵다."

—사십이장경—

갈 때도 빈손으로 가나니...

來無一物來去亦空手去 自財無戀忘 他物有何心 萬般將不去 唯有業隨身

三日修心千載寶 百年食物一朝塵

울 때 한 물건도 가져 오지 않았으며,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가나니,

자신의 재물에도 미련이 없는데, 남의 물건을 어찌 욕심 내리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만이 몸을 따라 가누나.

행복의 근원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지혜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나는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법구경—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존자여!!! 세상에 모든 부처님도 있고, 모든 벽지

불도 있고, 모든 성문승도 있고, 모든 전륜성왕도 있고, 모든 지방의 왕도 있고, 모든 인천도 있고, 모든 부자도 있고, 모든 빈자도 있고, 모든 행복지도 있고, 모든 불행지도 있고, 모든 남여도 있고, 모든 태란 습화생으로 나는자도 있고, 발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자도 있고, 모든 6도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도 있고, 꼬끼리, 소, 말, 낙타등등 모든 동물들도 있고, 금, 은, 진주, 마노, 산호 등 모든 보물들도 있고, 모든 곡물, 모든 약초등, 산과 바다수산물등 일체 물건이 다 있는데

존자여!!! 세상에 없는 것이 있거든 말씀해 보시지요." "대왕이여!!! 세상에 모든 물건이 있어도 이 세가지만은 없습니다. 무엇이 세가지인가? 즉-세상에 늙지 않고 죽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변치않고 무너지지 않음이 없고 제일의적으로 말하여 영원이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나선비구경—



2011년도 햇보리자 총지중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앞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중 각 사원 주교(총지중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의지로 총지정보의 미래를 열다

총기40년 총지정보 전국통신원 워크숍



총지중 전국 사원의 통신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11일-12일 양일간 서울 총지중 통리원 2층 반야실과 청계천, 창덕궁에서 통신원 교육 및 현장 취재실습이 이루어졌다. 오후 2시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지사 선도원 주교의 집공으로 시작된 입제식에 이어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법장원 박종환교무의 사회로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지성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지통신원 여러분들은 종단 홍보와 교화의 최 일선을 담당하는 중요한 소임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교육과 토의를 통해 종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며 짧은 시간 많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했다. 이어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의 종보

통신원 결성의 과정과 전망에 대한 평을 통해 어려웠던 결성과정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외부강사 초청 강연으로 주간불교신문 김주일 차장의 “취재기사 작성에 관한 요령”이란 주제로 약 1시간동안 각 사원에서 취재 활동 시 필수적인 요소와 방법론 그리고 간단한 사진 촬영법등을 교육하였다. 이어 종보



김종열 편집장의 종보의 편집과 통신원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어졌다. 약 2시간 정도의 교육이 끝난 후 통신원들은 자체적으로 ‘종보의 발전과 통신원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자유 토론에서는 그동안 통신원 역할에 전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각 지역 별로 ‘편집위원이간다’ 지면을 1회 이상 구성하기로 하고, 각지역의 주요 행사나, 불교적 문화 소재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원 ID카드



발급과 지역별 정기 모임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한참 열띤 토론을 펼치는 가운데 효강 종령예하가 예고 없이 방문하셔서 모두가 예를 갖추고 맞이하였다. 효강 종령예하는 통신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총지 종보는 총지중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소중한 신문입니다. 통신원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 나가면, 정통불교종단의

법통을 이어나가는 최선의 법보가 될 것입니다.”며 통리원장 시절 직접 창간하신 종보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표명하며 발전을 서원 하셨다. 뜻밖의 격려와 치하를 받은 통신원들은 다시한번 통신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공식적인 교육과 토론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저녁 공양 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탑승 첫

김종열 기자



종보 통신원 ‘왕의 정원’ 비밀을 밝히다. 창덕궁 통신원 취재 실습 현장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밤새 부슬부슬 내리더니 취재실습을 위해 창덕궁 앞에 도착하자 하늘은 점차 개어가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늦가을 고궁의 정취를 흠뻑 젖을 수 있는 날씨다. 역시 총지 종보 통신원들의 취재 나들이에 부처님의 가지력이 통한다. 법장원 배공주 교무로부터 입장권을 교부받고, 드디어 조선시대 경복궁 보다도 더 오랜 동안 조선의 법궁으로 사용된 창덕궁에 입성했다. 어제 교육에서 숙지한 오늘의 취재 포인트인 창덕궁에 심어진 전통수목에 대한 메모를 취재수첩 맨 앞줄에 적어놓고, 주변을 살펴가기 시작했다. 창덕궁은 금원을 비롯하여 다른 부속건물이 비교적 원형으로 남아 있어 가장 중요한 고궁이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일제의 침탈 속에서도 살아남아 세계가 함께 관리하는 궁궐로 보존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궁전의 전각들을 뒤로하고 드디어 후원을 관람하는 임구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 창덕궁 관리당국은 후원의 보전을 위해, 입장객을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를 시행했다. 통신원들은 후원에 입장하는 순간 양 연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진입로의 낙엽 펼쳐진 낙엽길을 발견하고는, 우리를 위해 낙엽을 남겨 둔 것에 감사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부용정 네모난 연못을 중심으로 정자와 누각을 짓고, 왕들이 연회와 독서를 즐겼던 곳이다. 특히 영화당 앞 뜰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로 전해진다. 수많은 인재들과 왕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곳 그곳은 바로 조선의 역사가

시작 된 곳이기도 하다. 간단히 기념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니 연경당 건물이었다. 연경당은 왕이 연로한 어른들을 모시고 연회를 베풀고, 사가의 생활을 체험하기위해 지은 것으로, 전형적인 99칸 집이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세가 높아도 99칸을 넘게 지을 수는 없었다. 단 임금이 사는 궁궐과 부처님이 계신 사원 진입로의 낙엽 펼쳐진 낙엽길을 발견하고는, 우리를 위해 낙엽을 남겨 둔 것에 감사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부용정 네모난 연못을 중심으로 정자와 누각을 짓고, 왕들이 연회와 독서를 즐겼던 곳이다. 특히 영화당 앞 뜰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을 보던 장소로 전해진다. 수많은 인재들과 왕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곳 그곳은 바로 조선의 역사가

수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동양 3궁중 가장 먼저 전기불을 도입했고, 자동차와 당구를 즐겼다는 사실을 편집장의 설명을 듣고는 알았다. 꼼꼼히 메모한 취재수첩을 가슴에 품고 통신원 전체 취재 실습을 마무리했다. 회향불공은 관성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지난 이틀동안 종보 통신원으로서 다시세운 서원을 가슴에 되새기며 아쉬운 회향을 했다. 뜻밖에도 관성사에는 워크숍의 마지막 피로를 풀라고 다과와 차를 준비고 작은 선물까지 주셨다. 모두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통신원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냈다. 모두들 헤어지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통신원들은 전국의 서원당으로 새로운 취재를 떠났다.

편집 취재=(무순) 이인성, 최영아, 박정희, 백지순, 강경민, 정미숙, 김옥임, 장경임, 김경숙, 양재범, 유복근, 권순복, 김경숙, 김경인, 김삼연, 고지현, 이수연, 한경림, 김정애, 함미옥, 김윤경, 이상록 통신원

■통신원 취재수첩 한줄 메모

단풍과 정자가 어우러져 극락세계에 온듯하다...=벽룡사 양재범
색깔고운 낙엽 몇 개를 주위 모아보는 재미도...=정각사 김정애
자연 속 그대로 우리의 자부심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
=정각사 이상록
가족들과 휴가를 오고 싶었던 곳...=단음사 권순복
소나무의 품위와 느티나무의 고고함은 나를 하심으로 안내...=밀원사 장경임
삶을 잠시 내려놓은 채 여고시절의 수줍던 소녀로...=성화사 김경숙
주변 구릉지와 조화를 이룬 부용정의 아름다움에 취해본다...=성화사 김경인
낙엽을 밟는 소리와 함께 한 잔 술 없이도 그냥 취하여 걸고 또 걸었다...=정각사 김윤경

*통신원 취재 수첩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봉 **진주화음사 헌공불사** 앵

충지종의 오랜 서원이었던 진주화음사가 비로자나 법신부처님께 헌공되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동참한 스승 및 교도들은 서원당과 득락전 관세음보살 앞마당을 가득채웠다.
 효강 종령님의 헌공사 대로 교화의 전당으로 서부경남 충지인의 정진 수행처가 되기를 바란다.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 선 여성들

소현 세자빈 강씨(1611~1646)

1637년(인조15년)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난 뒤 소현 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청의 볼모로 잡혀 간다. 세자빈 강씨 27세, 세자나이 26세, 시동생 봉림대군 19세 때였다.

세자빈 강씨는 가마 속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북방산천을 보았다. 세자빈으로 간택 된 후 10년 동안 구궁 궁궐 깊은 곳을 세상의 전부로 알던 강씨는 압록강과 만주 벌판을 지나 심양에 도착했다.

도착한 곳은 심양 궁궐 근처의 심양 관 이었는데 이곳은 사실상 주청 조선 대사관이었다.

이곳에서 소현 세자는 청나라와 직접 상대하기를 꺼리는 인조를 대신해 많은 일을 수행했다. 청나라 파병요구에 응하고 반청 활동을 하다가 끌려와 재판 받는 ‘김상헌’ 같은 인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큰일 중의 하나였다.

세자빈 강씨는 심양 관 생활을 저주하며 보내지는 않았다. 심양 관 생활에는 소현 세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세자는 원래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인조가 처음 세자빈 간택령을 내렸을 때 삼 간에 포함되었던 윤의립의 딸 윤씨 소녀였다. 세자는 한번 보고 마음에 들어 했으나 남인이라는 이유로 간택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있은 2년 후 승지 강석기의 딸 강씨 소녀가 세자빈에 간택된 것이니 세자와 사이가 원만하기는 쉽지 않았다.

세자빈 강씨의 진가는 심양 관에서 나타났다. 인질생활을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만 보내지 않았던 강씨를 소현 세자는 깊이 신뢰했다. 세자빈 강씨는 심양 관 생활을 자신과 조선 운명의 전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소현 세자가 정치적 일들에 몰두하는 동안 세자빈 강씨는 심양 관의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심양 관에 정착한 조선인 일행은 192명이었는데 이 대 식구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

그 당시 심양의 남 탐 거리에는 조선인 포로를 매매하는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돈이 있으면 이들을 구해 낼 수 있었다. 강 빈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물품부족에 시달리는 청나라 지배층의 두둑한 지갑을 조선의 질 좋은 물품과 연결시켜서 큰 돈을 벌어들였다.

무역을 통해 경제에 눈을 뜨던 인조19년(1641),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청나라에서 농사짓기를 권유해온 것이다. 심양 관의 신하들은 농사를 짓게 되면 영원히 조선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강 빈의 생각은 달랐다. 농사에 익숙하지 못한 유목민족의 땅에서 우수한 농법으로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청나라는 적지 않은 농토를 제공해 주었다. 처음에는 한인 노예들과 소를 사서 농사를 지었다. ‘심양 장계’에 따르면 인조 20년에 거둔 곡식은 3319석이나 됐다. 강 빈은 점차 한



인 농군을 노예시장에서 속환한 조선인으로 바꾸었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난 조선인들은 더 열심히 일 해서 수확물은 더욱 많아졌다. 무역만 하던 단일 체제에서 생산과 무역을 겸하는 복합체제로 발전했다. 강 빈은 인질생활을 좌절하는 대신 대규모 영농과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경영가로 변신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선택이었다. 소현 세자가 서양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개방주의자로 변화한 것과 같은 변화였다. 이제 이들 부부가 귀국해서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되면 조선은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인조는 이런 강 빈과 소현 세자를 의심했다. 그는 강 빈이 청나라와 짜고 자신을 폐한 후 소현 세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인조 21년 6월 사망한 강 빈의 아버지 강석기의 빈소에 가는 것조차 막았다. 인조의 가혹한 조치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소현 세자 부부를 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조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무려 9년간의 인질생활이 끝났을 때 심양 관에는 곡식 4천7백석이 남아 있었다고 하니 세자빈 강씨의 경영 수완을 잘 알 수 있었다. 강 빈은 이런 경영수완으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결심했으나 세자가 귀국 두 달 만에 독살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인조는 원손 석철을 폐한 후 세자의 동생 봉림대군을 후사로 결정했다. 인조의 갑남은 다시 세자빈 강씨를 향했다. 인조는 안사돈이었던 세자빈 강씨의 어머니와 두 오빠 강문성과 강문명도 사형시키고 세 아들을 제후도로 유배 보냈다.

세자빈 강씨의 죽음은 이후 선비들의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었다. 송시열 등이 계속 세자빈 강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숙종 44 (1718)년에 복위되었다.

세자 내외의 꿈과 좌절은 그야말로 조선의 꿈과 좌절이었다.

조선을 개혁의 나라, 개방의 나라, 실용의 나라로 만들려던 꿈이 좌절된 것이다.

세자빈 강씨의 죽음은 시대를 앞서 나갔던 실용주의 여성 경영자의 죽음이자 그가 만들려던 개혁의 나라, 실용의 나라는 꿈으로 막을 내렸다

자료-여성사 전시관

불교설화 <62>

옛날 중국 천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은 천하 절색의 미녀였다.

『아마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고금에는 물론 그림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니라.』

이처럼 흠족해 한 천자는 어느 날 미모의 여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 화공을 불렀다.

『화공은 듣거라. 오늘부터 이 여인의 실제 모습을 한치도 틀림없이 그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해라.』

왕명을 받은 화공의 이름은 전하여지지 않으나 혹자는 장승요라고도 한다.

그 화공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여인의 모습을 다 그렸는데 그만 마지막 붓을 놓는 순간 붓을 잘못 떨어뜨려 그림 배꼽 밑에 붉은 점을 찍어 놓게 되었다. 아무리 지워 보려 했으나 고쳐지질 않았다. 화공은 어느 결에 그 미인의 배꼽 밑에는 반드시 날 때부터 붉은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게 돼 완성된 그림을 천자에게 바쳤다.

『아니 이럴 수가. 옷 속에 감춰진 배꼽 밑의 점까지 그리다니...』

그림을 본 황제는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의 형상은 실물과 똑같이 매우 잘 그렸으나 감추어진 배꼽 밑의 점은 어떻게 알고 그렸느냐?』

화공이 답이 없자 황제는 진노하여 명을 내렸다.

『화공을 당장 하옥하여 중벌을 내리도록 하라.』

이때 옆에서 들고 있던 재상이 아뢰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아주 곧습니다. 원컨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가 어질고 곧다면 어젯밤 꿈이 꿈에 본 사람의 형상을 그려 바치게 하라. 그 그림이 꿈과 같으면 용서해 줄 것이니라.』

천자의 명을 받은 화공은 어느새 11면 관음보살상을 그려 바쳤다. 황제는 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연 간밤 꿈에 본 보살상과 똑같지 않은가. 황제는 그제서야 화공이 예사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용서해 줬다.

죄를 면한 화공은 박사 분절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는 신라국에서는 불법을 높이 받들어 믿는다 하니 그대와 함께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함께 공부하여 널리 이웃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소?』

박사 분절이 좋다고 승낙하자 두 사람은 신라국에 이르러 중생사 관음보살상을 조성했다.

그 관음상이 봉안되자 신라인들은 우러러 기도하여 많은 영험을 얻었다.

신라 말년 천성년간(926~929)에 정보 최은함이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다가 이 절 판

화공과 관음상



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올린 후 아들을 낳았다. 그 후 석 달이 채 못되어 후백제의 견훤이 경주를 침범하여 성안이 어지러웠다. 최씨는 아기를 안고 절로 달려가서 관음보살님께 이렇게 고했다.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 일이 다급하게 됐습니다. 이 어린 자식으로 인해 식구 모두 화를 입을 우려가 있사오니 참으로 대성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이라면 원컨대 자비의 힘으로 길러 주시어 우리 부자가 다시 상봉케 하여 주옵소서.』

최씨는 슬피 울면서 세 번 절하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관음상 밑에 감추고는 뒤를 돌아보며 떠났다. 몇 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가자 절에서는 아직도 젖냄새가 나고 있었다.

아기는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보통 사람과 달랐으니 그가 곧 정광벼슬에 이른 승노였다. 그는 나중에 최 숙을 낳았고, 숙은 안제를 낳았으니 이로부터 계속 자손이 끊이지 않았다.

통화 10년(992) 3월에 있었던 일이다. 중생사에 사는 성태 스님은 보살 앞에 꿇어앉아 고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절에 살면서 부지런히 예불을 모시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허나 절의 토지에선 나는 것이 없어 더이상 향사(香祀)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려 인사드립니다.』

보살님께 하직 예불을 올리던 스님은 그만 잠시 졸았다. 그때 관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 스님에게 일렀다.

『법사는 아직 이곳을 떠나지 말라. 내가 시주를 해서 제사에 쓸 비용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이니라.』

잠에서 깬 스님은 기뻐하며 다시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날로부터 13일 후 갑자기 낮선 사람 둘이서 소와 말에 물건을 잔뜩 싣고 절 문 앞에 이

르렀다.

『어디서 오신 뉘신지요?』

『우리는 김철 지방(지금의 김해) 사람입니다. 며칠 전 중생사에 사신다는 스님 한 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양에 쓸 비용이 어려워 시주를 구하러 왔다고 하시기에 마을에서 시주를 모아 쌀 몇 섬과 소금 너섬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이 절에서 시주 나간 스님이 없으니 그대들이 필경 절을 잘못 찾아온 것 같소.』

『아닙니다. 스님. 그 스님이 우리를 데려오다가 저기 우물가에 이르러 절이 멀지 않으니 먼저 가서 기다리겠노라며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랐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으나 성태 스님은 그들을 데리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며 반가운 듯 크게 말했다.

『스님! 바로 이 부처님이 시주를 구하러 오셨던 그 스님상입니다.』

그들은 말하면서도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후 중생사에는 공양 올려지는 쌀과 소금이 해마다 불어 났다.

또 어느 날 저녁에는 일주문에 불이 났다.

『중생사에 불이 났어요. 빨리들 나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달려와 불을 끈 후 법당에 올라가 보니 관세음보살상이 없어졌다.

『에그머니나,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불난 와중에 영험이 있으시다니 누가 헤쳐간 것 아닐까요?』

『이렇게 모여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나가서 경내를 찾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경내 이곳 저곳을 찾았다. 그때 한 여인이 외쳤다.

『여기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요!』

여인은 절 뜰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관음상을 보고 반가움과 놀라움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다.

『불이 나니까 누가 밖으로 안전하게 모셨나 보군요. 누가 부처님을 이곳으로 모셔 오셨습니까?』

모두 모른다고 고개를 저을 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관음대성의 신령스러운 힘인 것을 알았다.

그 후 중생사를 찾는 신도들의 기도는 오늘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간곡히 기도할 때 기도성취가 이뤄지고 있어 옛 전설을 되살린다고 한다.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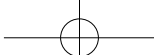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날마다 좋은날

부처님 가피로 다녀온 모녀여행

총지사 교도 이 정 화

참 많은 공수표를 날렸다. ‘해의 여행을 시켜 준다’, ‘나중에 용돈을 넉넉히 드리겠다.’ 나는 기억조차 하지 못 하는 많은 공수표를 엄마에게 날렸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원하는 걸 해드리고자 할 때면 ‘언제까지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게 됐다. 서른 넷이 되도록 하나도 제대로 해드린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항상 쇠송한 마음을 가슴 한쪽에 지니고 있던 즈음, 올해 그 중 한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엄마와 함께한 일본 여행이다. 지난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촌 언니가 고모(사촌 언니의 엄마)께 언제 함께 일본을 가자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언니에게 지나가듯 얘기를 던져줬다. 기회가 되면, 사촌 언니와 고모, 그리고 나와 엄마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지난 4월 회사를 옮긴 후, 여름휴가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던 중, 다행히 주말을 포함해 9일이라는 휴가가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된 후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에게 9일이라는 긴 휴가 기간이 주어진 건 처음이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사촌 언니네와 함께 일본 온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다. 언니도 흔쾌히 응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올해가 칠순인데 여행을 떠나는 기간 중 아버지의 생신이 끼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당신을 대신해 얼마 일본 여행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 무척 고마워하시며 상관하지 말고 꼭 다녀오라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다. 한창인 시절, 엄마에게는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 가셨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집안 형편이 기울어 따로 여행을 가신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셨지만 엄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나보다. 일에 치여 제대로 우리가 가는 곳에 대해 알아볼 짬도 없이 지난 8월 12일 부산으로 내려가는 날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저녁 버스에 올라탔다.

설레었다.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여행’만을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이를 후인, 15일 새벽, 우리 모녀와 고모네 모녀는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타고 음료수 한 잔 마시니, 어느새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 공항이 보인다. 짐을 끌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유명하다는 초밥집을 찾아 아이쇼핑, 아차 판단을 잘 못 했다. 엄마는 지하를 싫어하실 뿐더러 오래 걷는 걸 힘에 부쳐하신다는 걸 감빳했다. 지난해 베이징을 여행에서도, 천안문 광장에서 자금성 입구까지 걷는데 이미 지쳐 아빠와 나만 들어가서 구경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당신은 입구에 앉아 기다리시겠다며...

그저 막내와 함께 여행 간다는 설레임에 에너지가 소진된 걸 모르고 계셨다가 지하에서 오래 걷다보니 체력이 급 저하돼 급기야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다. 이에 사촌 언니와 고모는 아이쇼핑을 계속하라 하고 나와 엄마는 어느 백화점 꼭대기 층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를 2시간, 이틀러고 여행을 온 게 아닌데 말이다. 굳어있던 표정은 엄마가 그리 원하시던 온천욕을 하면서 슬그머니 풀렸다. 그렇게 탈 많았던 첫날밤은 지나가고, 이튿날은 본격적인 온천을 위해 유명한 온천휴양지 ‘유후인’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리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산록을 따라 난 고속도로가 나타난다. 중간 중간 마을과 연결된 정류장이 있어 버스는 사람을 태운다.

드디어 그림에 나오는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마을 ‘유후인’에 도착하자, 상점이 줄지어 있는 거리가 우리를 맞는다. 그길을 따라 올라간 끝에 나오는 호수는 석양에 비친 물고기의 비늘이 금빛으로 빛난다 하여 ‘킨린코(金鱗湖)’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낮에 보는 호수도 충분히 멋졌다. 물이 맑아 노는 고기들이 다 보이고, 오리들도 한가롭게 호수를 노닐고 있었다. 일본여행의 묘미 중 하나인 전통여관 료칸(일본식 전통 여관)에서 먹은 저녁‘가이세키 정식’과 식사 후 노천 온천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좋고 싫음’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우리 엄마는 온천 중,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나와 사촌 언니에게 합장을 하고 고개를 ‘꾸벅’하며 ‘모두 모두 고맙다’고 말씀하신다. 너무 좋다하신다. 그리고 보니 고모는 이번 여행 동안 가타부터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고모는 안 좋으세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했더니, 덤덤하게 하시는 말씀.

“이루 말 할 수 없이 좋은데.” 한 마디로 끝내신다. 그렇게 우리의 2박 3일의 짧은 일본 여행의 마지막 밤은 저물었다.

무작정 계획 없이 떠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본 여행이었다.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 때를 떠올리며, 엄마와 함께 웃곤 한다. 그리고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가 직장을 옮기지 않았다면, 마음과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면,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 여행이었을까?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또한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온 기회였다. 가끔은 부처님의 법을 지키려 노력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걸 느낄 때마다 혼자 속으로 되뇌어 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일마다 지도했는데, 동래 온천장 학사가 화명동으로 옮겨지면서 거리도 멀고 지치기도 하여 13년을 지도하고 그만 두게 되었다. 한국방송대학생들은 같은 과에 있으면서도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대학문화에 접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불교학생회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전시회나 운동회나 정기법회 외의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그 뒷바라지가 힘들었던 반면에 보람 또한 컸다. 내가 그들에게 강의한 것을 매번 소식지에 정리하여 신게 되었는데 어느 학생이 책으로 묶어내자고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94년도에 출판한 것이 ‘고해를 건너는 뗏목’이란 책이며, 당시로서는 개인의 강설집을 찾아볼 수 없을 때라 내가 이 책을 출판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회고와 반성
내가 이렇게 불교 그리고 불교학생들과 함께 걸 어온 행로는 남다른 뜻과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의 약점 때문이기도 하며,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 이 아니었지만 바톤을 받아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이다. 이제 내 인생 황혼에 서서, 내가 불교와 함께 걸어온 인생행로를 돌아다본다. 젊은 나이에 한 동 안 내가 여러 종교를 거웃거리면서 방황의 길을 걷 기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불교 즉 밀교라는 제자리에 갇히 뿌리내리기 위한 일시적



외도였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몸은 일시적으로 불 교를 떠나기도 했고 밀교를 떠나 현교를 떠돈 적도 있지만 결코 마음만은 떠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 되며, 결과적으로 본다면 밀교에서 출발하여 다시 밀교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제대로 알지 도 못하는 주제에 마음만 조금해서 느닷없이 불교 교단에 뛰어올라 학생들을 지도한답시고 겹도 없이 떠들면서 바쁘게 걸어온 내 불교 인생! 학생들의 순수한 영혼을 다렵히면서 구업을 많이 지은 것 같 은 생각도 들고, 자기 수행은 게을리 하면서 남 앞에 겹 없이 나선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 며, 속된 강정처럼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대로 치열하게 걸어온 지난날을 보람으 로 생각하면서 자위와 감회에 젖어본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난날의 작은 인연으로 우리 총지종단에서 부족한 저를 중 략학교 교장으로 영입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 큰 은혜는 백골난망이 아 닌 수 없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다.

총지동의보감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모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그러하듯이 여성질환의 경우도 병을 보는 관점과 치료에 있어 양한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방은 결과론적인 학문, 기질적인

여성질환 한방치료의 장점

학문으로 주로 발병한 병의 결과에 치중하고 이를 조절하고 개선해 가기 위한 부분에 목적을 둔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한방은 발병환경과 원인을 중시하는 학문, 기능적인 학문으로 인체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인 큼 발병환경과 원인을 찾아 해당병소와 더불어 연관된 오장육부의 건강을 함께 살펴 조절하고 아울러 생활에서의 노력을 통해 치료이후의 상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질환이라고 하면 여성만이 고유하게 지니게 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남성과 다른 장기인 자궁을 의미하며 자궁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성에 있어 자궁은 어떠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이지만 그 외에 자궁의 기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 스스로도 큰 의미를 두거나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리, 임신, 출산, 폐경 등을 거치면서 자궁은 다양한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초경이 지나 생리통, 생리불순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결혼후 불임,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기질적인 자궁내에 질병을 갖게되는 것도 어쩌면 자궁과 함께 여성의 일생과 건강이 함께 간다는 것에 동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두가 여성호르몬의 관계와 밀접하며 여성을 여성답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궁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들을 통틀어 여성질환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임신이라는 신비롭고 성 스 러 운 과 정 을

혹은 부인과 질환이라 말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가 발달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업무상의 스트레스, 더불어 성에 대한 자유와 무분별한 임신과 유산 등으로 최근 여성질환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한의학이 서양의학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전통적인 병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양의학이 치료에 한계를 나타내면서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이 다시 살아나고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체질과 병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약이 처방되어야 하며 질병의 길을 보기보다는 근본적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치료와 기술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여성질환의 경우 대표적으로 자궁근종을 예로 들면 30대 후반 이후 30~

40%이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근종의 경우 양성종양으로 수술하지 않고 유발되는 증상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자궁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폐경이후에도 건강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에서는 자궁이 아기를 낳고 생리를 하는 기능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으므로 근종이 있을 경우 경과를 보다가 결국에는 자궁을 들어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궁근종외에도 겹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 직접 해당장기를 자르거나 수술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오장육부기능에 불균형이나 저하를 유발시키고 2차 적인 부작용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서양의학의 한계를 말하기보다는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바라볼 때 기질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현명함을 강조합니다. WT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사회적 안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여성에게 있어 자궁은 폐경이후에도 피부와 미용,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기이며 암과 같은 악성종양이 아닐 경우라면 가급적 질병의 발생시기와 인체의 면역상태, 오장육부기능 등을 살펴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쳐서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방치료는 과학적, 신 의 료 기 술 이 라는 이 름 하 에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 생활환경, 등이 간과되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보강하고 보다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필요한 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자악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풍경소리

아름다운 관계

별은 꽃의 꿈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 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꽃과 별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장용철 / 시인



무성한 숲만이 온갖 새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군게 가슴을 닫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스함이 없는 가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목마르고 험겨울 것입니다.

작은 실개천 하나가 넓은 초원을 두루 적시듯,
지치고 힘든 나그네에게
한 모금의 샘물은 곧 목숨의 근원이 됩니다.

따스한 마음은 세상의 가슴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김영희 / 시인

가슴을 적시는 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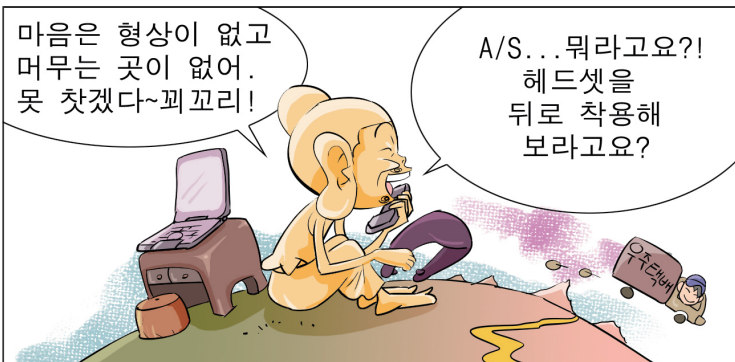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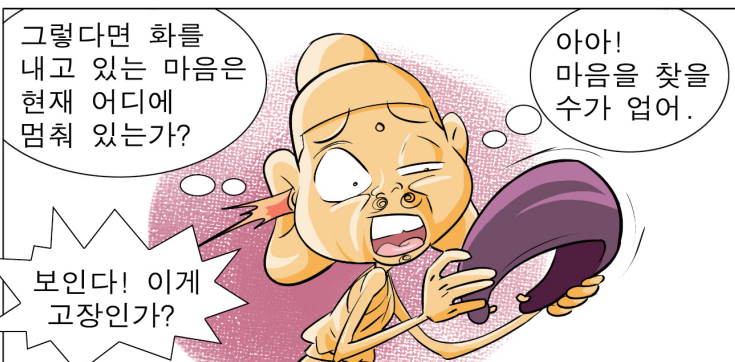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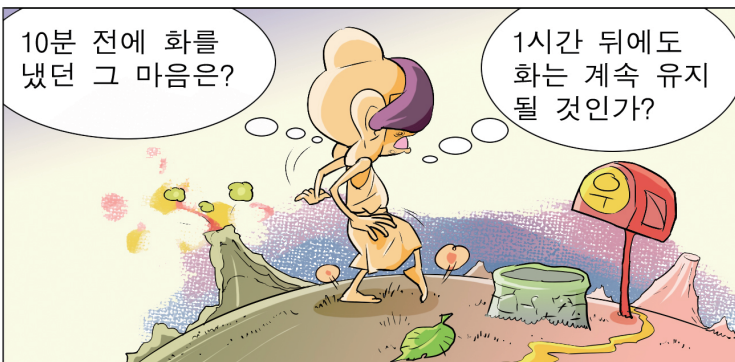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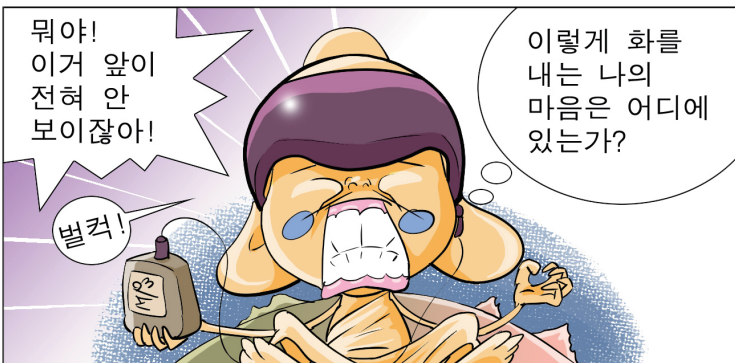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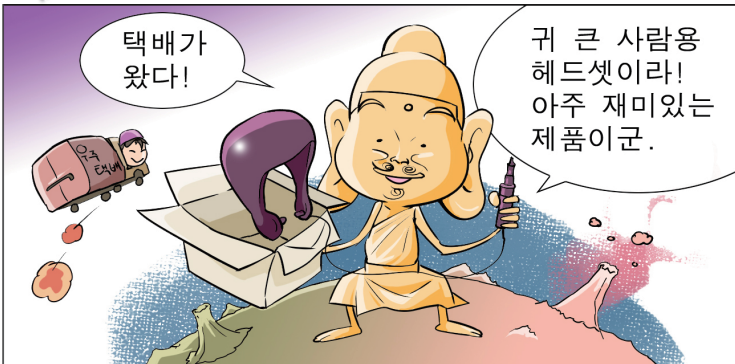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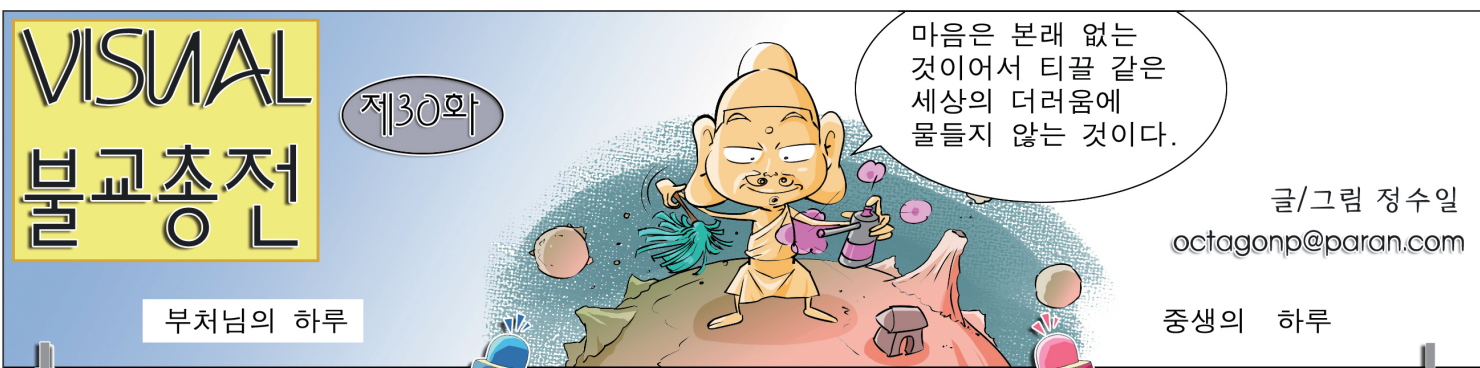


이달의 사진

자식을 향한 끝없는 서원



사진= 조계사 김종열기자



부처는 집착하지 않는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p73 1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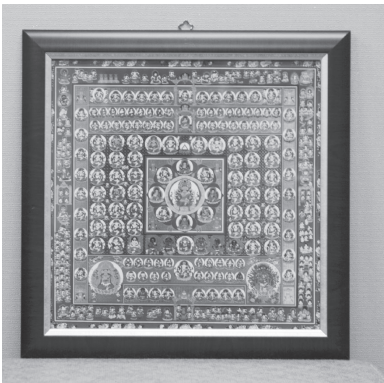
중생은 집착의 반복 속에 산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테에 비유
하고 그 모테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
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
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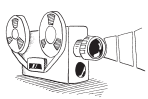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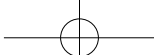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
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
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
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
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현겁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
습니다



- ※ 구성표
-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영화에서 불교보기 (13)

/황금종려상 받은 태극영화 <영클분미>

상대방은 실재가 아닌 우리 뇌가 만들어낸 모습



우리가 속한 세계가 모두 환상이라고 말하자 마자 많은 사람들은 총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본인은 분명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갖고 환상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세계를 환상이라고 할까요?

<원각경>에서는 꽤 사실적인 문장으로 세계가 환상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물과 흙, 바람과 불로 이뤄졌는데 인연이 다하면 이 네 가지(四大)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더불어 짝을 이루는 마음은 사체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보통 고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이 사대를 근거로 해서 생긴 인연상(因緣相)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사라지면 부수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몸도 마음도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실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은 황당하다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세계관을 표현한 태극 영화 <영클 분미>를 황당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교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아핏차폰 위라세타쿤의 <영클분미>는 이야기에 중점을 둔 영화가 아닙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영화가 아닌 것이지요. 이 영화의 목적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인간관계의 허구성을 파헤치면서 본질을 찾으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환상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실존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분미 아저씨는 죽음에 앞둔 사람입니다. 심각한 신장병을 앓고 있어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수액을 연결하여 몸 안의 수분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자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농장으로 처제를 초대합니다. 마지막 남은 며칠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보내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고, 그의 농장이나 재산을 처제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처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정도로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내는 19년 전에 죽었고, 외아들도 6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통이라는 청년과 함께 옵니다. 통이라는 청년은 처제와 어떤 관계인지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인도 아니고, 그러면서 영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긴장의 한 끈으로 이끌어갑니다. 의도적 의문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설정은 보편적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인간관계를 통해 불교적 세계관인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젠과 통의 관계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계도 아니면서 늘 함께 다니는 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습니다.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형식적으로도 연결될만한 고리도 없으면서 늘 함께 다니는 젠과 통의 관계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야말로 의문의 그 누구와 다름없는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데 처제인 젠과 형부인 분미의 관계 또한 별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분미의 재산을 물려받고, 분미의 장례를 주관했던 젠은 분미를 위해 추모책자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란 만들어낸 모습과의 관계이므로 결국은 환상 속 인물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중간에 감독은 영화의 줄거리와 완전히 이질적인 장면을 집어넣었습니다. 난데없이 못생긴 공주가 나옵니다. 거기서 공주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의 환상을 보고 있을 뿐이야."

공주는 가마꾼에게 공주라는 자신의 신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반짝이는 귀금속과 자극적인 향수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공주는 가마꾼과 달리 공주라는 신분과 화려한 귀금속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연못으로 걸어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러자 딸은 그냥 지어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영화에서 분미와 젠, 또는 젠과 통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미의 전 재산을 물려받고, 죽기 전 마지막을 함께한 처제지만 정작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모 책자에 들어갈 내용을 그냥 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어낸다는 말에는, 결국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은 실재가

들어갑니다. 자신이 걸쳤던 귀금속을 다 벗어던지며 물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치레를 통해 맺는 관계에 혐오감을 느낀 것이지요.

거짓 관계가 아닌 진정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런 관계의 가능성을 그네는 메기와의 관계에서 발견합니다. 마침내 공주는 메기와의 짝짓기를 통해 메기로 변해서 연못 속을 유영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환상이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하여도 인간의 몸이 갑자기



완전변태를 해서 메기가 되거나 원숭이 귀신이 되는 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환상 없는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결론인 것입니다.

영화는 관계의 환상에서 한 발 나아가 존재의 환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환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제 젠과 통 그리고, 젠의 딸은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다가 통이 야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통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나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도시의 복제술처럼 여러 명의 본인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독은 두 장면을 교차시켜서 보여줍니다.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음악을 듣고 있는 통과 젠의 모습과 또 호텔방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에 시선을 두고 있는 통과 젠, 그리고 젠의 딸. 그러니까 젠 일행은 호텔에도 있고, 음식점에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아의 분열일까요?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상대가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지금 머물고 있는 현재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 인물과 더불어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영화는 표현했습니다.

환상 속을 부유하다가 분미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이 누군지도 모르는 청년과 텔레비전을 보는지 밥을 먹는지도 모른 채 환상 속을 부유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이 되면 분미처럼 죽을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환상놀음에 지나지 않고, 환상이 아닌 유일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분미 아저씨는 젠에게 지옥 같은 도시가 아닌 자신의 농장에서 살라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분미 아저씨는 분명 도시의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도시와 농장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데, 도시의 삶은 다른 생명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인간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환경에서 인간은 텔레비전 앞에 갇혀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또 다른 환상에 빠져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분미의 농장엔 풀벌레 소리가 시끄럽고 나무들이 무성하며 살아있는 것들뿐입니다. 또한 그곳엔 라오스 인도 있고, 분미의 죽은 아내와 사라졌던 아들이 각각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등 온갖 종류의 존재가 혼재해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분미의 말은 다양한 존재와 더불어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영이나 관념이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생명체로서 상대방을 느끼면서 더불어 실존하는 삶이야말로 환상에 빠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화는 사람과 메기의 짝짓기라든지, 사람과 원숭이 귀신의 짝짓기 등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가치관의 개입 없이 존재와 마주하는 삶, 이것이 바로 환상이 아닌 실존의 삶인 것입니다.

전남영광 특별한 굴비의 맛 청수굴비



영광굴비의 유래

굴비(屈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증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최준경을 매수하여 체포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김창호)
농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두드름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청수4호부터 청수15호까지는 저희가 택배 부담합니다.

• 제품설명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염어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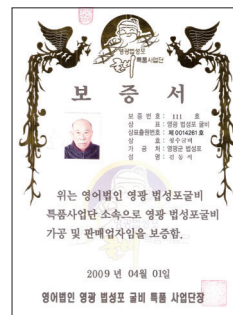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뿔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보관방법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끔씩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지 됩니다.

• 요리방법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사업자 등록 번호 : 410-97-06370 · 대표자 : 김동식
상담 및 문의 TEL : 061-356-2466 FAX : 061-356-2468 H P : 010-5325-8824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